

농산어촌 기숙형 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하여

Consider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Dormitory

정 유 경*

Chung, Yoo-Kyung

1. 도입

정부는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편차 없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지역·중소도시·대도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대상학교를 최근 선정, 발표하였다.

농산어촌 지역의 1개 군 1개 학교, 지역 거점 고교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심의와 추천을 거쳐 당초 추천된 90개 학교 가운데 82개교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학교가 인근 도시나 읍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육체적 피로는 면학분위기 저하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처럼 열악한 교육 환경은 특정 지역의 인구 집중을 촉진하고, 지역적 확산을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는 지역 간 편차 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교육 형태로서 바람직한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보와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바로 '기숙사의 운

영'에 대한 이해다. 국내의 기숙형 학교는 전체 중고등학교 수의 10% 수준인 600여 개교이며, 대부분 고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고교는 지역적 특성은 물론, 실업계 또는 인문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 학교의 성격도 제각각이고, 수용규모와 시설 기준 또한 제각각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수가 많지 않아서 별도의 운영규정도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기숙형 학교에 있어서 '기숙사'는 '교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이다. 학기 기간만 하더라도 평일 방과 후 시간, 주말과 공휴일을 따지면 하루 중 2/3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방학기간 운영까지 염두에 둔다면 학교 기숙사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번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저마다의 운영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기숙사 운영에 대한 이해 없이 건립된다면, 유용한 시설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과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휴 시설이 될 수 있다. 이에 기숙사 업무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숙사 운영업무

기숙사 운영업무는 크게 기숙사 전반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 생활지도업무, 교육업무 그리고 생활환경 유지관리 업무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 (주)굿모닝C.O.M. 대표이사

1) 행정업무

첫째, 기숙사의 전반을 관리하는 행정업무가 있다. 일과를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 놓지만, 수십 가지 예외가 생기고, 제재하려는 어른과 벗어나려는 학생들의 ‘기’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기숙사다. 타인에게는 인색하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학부모의 불합리한 요구를 직면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각종 제도나 규칙, 규정 등이 미흡하면, 수시로 형평성 시비가 일게 되고 통제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일, 상담일지·약물 섭취·교우관계·외출·외박·면회·상벌점 등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행정업무는 그래서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행동 양식은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보이는 모습과 일대일로 대면했을 때 보이는 모습이 다르고,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와 부모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도 다르다. 그러므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그 내용들은 가급적 세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개인에 대한 생활태도를 알 수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학년별·성별·시기별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행동을 가늠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개별 성향에 따른 것인지,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은 물론, 특히 무단외출이나 기물파손 등의 돌발적이고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해 등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만족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2) 생활지도 업무

둘째,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업무가 있다. 고등학교 기숙사는 아파트와 같이 상호 간섭받지 않으면서 자치 규약 아래 생활하는 ‘공동생활’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생활이 정해진 일과에 의해 통제를 받고, 주어진 규정에 따라 생활하는 ‘단체 생활’ 공간이다. 따라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교의 교육목표라는 큰 틀 아래에서 ‘통제’ 받게 된다. 학생생활지도는 이처럼 학생들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면서 교육적 성취를 이루고, 무탈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일이다.

기상을 할 때는 밤새 이탈자는 없었는지, 환자는 발생

하지 않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인원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에는 정숙 지도를 해야 한다. 호실 내 청결상태 및 정리정돈 상태를 수시 점검해야 하고, 외출 및 외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 확인을 비롯하여 귀사 시점을 관리해야 한다. 호실 구성원 간의 갈등은 없는지, 남녀 학생 간의 도를 지나치는 이성교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취침 시, 인원점검과 더불어 상호 숙면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 취침 이후에는 야간 응급환자 발생이나, 무단 외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순회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3) 기본 생활 교육 업무

세 번째, 단체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업무가 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단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이다. 세대마다 자녀수가 격감하였다. 요즘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에 조차도 크게 익숙하지 않은, 한두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가정 출신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또한 절약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될 만큼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 향상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반면 소득별 격차에 따라 상대적 빈곤감은 크게 느끼며 자라는 세대다. 또한, 각 가정별 교육관에 따라 자녀에게 요구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제각각이다.

이렇듯 학생들이 처한 서로 다른 생활환경이 기숙사라는 환경과 직면하면, 모두 ‘갈등’의 형태로 표출된다. 책상이나 침대 정리정돈 방법이나 세면이나 샤워 방법, 잠을 자고 깨는 등의 서로 다른 습관을 지닌 친구들과 생활해야 한다. 공공장소나 기물이 있다면 순서를 정해 주어진 규칙대로 사용해야 하고, 세탁이나 분리수거처럼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라면 거의 하지 않을 일들도 스스로 해야 한다. 타인과의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는 생활이고, 스스로와의 약속과 절제를 요구하는 생활이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모로부터의 어설픈 해방감을 가지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의 특성과 생활하는 방법,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해소방안 등을 상세히 담아 충분한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해야 한다. 수칙에 대하여서는 소그룹 단위로 나누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반했을 경우 다르게 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특히 재

학생들에 대하여는 반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소방 안전이나 건강관리, 성교육 등 단체 생활이므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와 상황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고 현실감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4)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업무

교육 업무의 다른 하나는 방과 후 및 주말과 같이 유휴시간을 이용한 교과 외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참여율은 높지 않다. 고학년이 될수록 수행평가 등 그룹과제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각 강좌별 강의의 질, 과제의 중요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개인별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반면, 기숙사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일과를 구성할 때 일정 요일이나 시간을 할애하여 각종 취미·특기·봉사활동 등 교과 이외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자율학습으로 채워지는 기숙사에서의 취미·특기·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자유 활동' 시간으로서 교육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특히 주말이나 방학기간은 각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화된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5) 생활환경 유지관리업무

네 번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있다. 그런데 교실이 공동 생활공간인 것과 비교한다면 기숙사, 특히 침실이나 화장실은 개별 생활공간이다. 또한, 똑같이 점유권만 있는 공용집기이지만, 교실의 책상과 달리 침실의 책상과 침대에 대하여는 '내 것'이라는 인식이 더 많이 개입된다. 따라서 시설의 파손이나 교장, 청결상태 등에 대하여 감수하는 정도도 교실과 달리 매우 낮다. 냉난방상태 등 생활의 쾌적함 정도에 대한 불만도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기숙사의 시설관리나 미화관리는 교실과 달리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은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영역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비상문을 잠그면 소방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문을 열어두면 무단 외출이나 외부인이나 이성 간의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생긴다. 적재적소에 CCTV와 카드-개폐기 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수시, 불시로 이루어지는 순회점검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3. 운영인력의 확보

기숙사 업무는 살림살이에 비유된다. 안 하면 표시 나지만, 한다고 두드러지게 표시나지 않는 일이라는 의미가 하나이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잡다하고 다양한 일거리가 생긴다는 의미가 하나이다.

기숙사 운영인력의 역할 또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세상이 달라져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그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지만, 학부모든, 학교든, 학생들이든 기숙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고전적 의미에서의 '어머니 역할'을 요구한다.

그 때문인지, 기숙사를 표현하는 문구에는 '집'과 같이~, 가정에서와 같이 편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숙형 학교들, 미국과 일본 학교의 기숙사도 마찬가지다. 모방하거나 차용해서가 아니다. 기숙사가 지닌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기숙사 업무는 각 가정을 대신 소중한 자녀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일이다. 언제든 기꺼이 안식처가 되어 주겠다는 어머니의 사랑과 바른 생활인으로서의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깊고 무거운 교육자적인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다. 또한, 기숙사 업무는 기숙사의 속성상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또한, 정형화되지 않은 학생들이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주어진 원칙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조율하며, 일일이 몸을 움직여 지도해야 하는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다.

그러나 주부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폄하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 기숙사 전담직원의 역할 또한 폄하되어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기숙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대수준을 충족하고 확장된 인식에 맞추어 기숙사를 운영할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는 아직 소홀한 것이 사실이며, 언급된 업무들을 간과한 채, 점호와 같은 단순 관리로 업무 내용을 축소하거나 국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마무리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본연의 목표와 취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르게 정착할 수 없다. 지금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학교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미 각 학교별로 평균 36억 원가량의 건립자금이 지원되었고, 각 지역 교육청마다 “교육에서 돌봄까지”라는 정책 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보다 강화된 생활지도 체계를 마련하는 일과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화하는 일에 고심하는 한편으로 시설 건립을 위해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한 걸음 늦추어 ‘운영’을 되짚어 볼 때다. 시설에 맞추어 좋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 계획이 반영된 결과물일 때 좋은 시설이 되어 운영을 좋게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선 이후에, 목표한 운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먼저 새로운 기숙사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되짚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한 수용인원과 학생 선발은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 학교는 어떠한 교육 목표와 이상을 지니고 그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다.

계획된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고 생활지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인력, 즉 사감이나 강사 수급, 또 우수 교원의 확보 계획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채용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이들이 사회적 소명과 책임감을 지니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렇듯 이상적인 기숙사의 운영비용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숙사 설립에는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나 운영은 10년, 20년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농산어촌 지역의 기숙형 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첫 단추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있다 하겠다. 기숙사 업무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치고 사전에 검토되어야 내용들을 꼼꼼히 되짚어 본 후에 인원과 배치, 프로그램 운영계획,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공간과 시설로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